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Weekly Strategy & Economy

2,000pt 부근에서 마감할 듯

2012. 12. 24



투자전략팀

Strategist/Economist **마주옥**

02) 3787-5025

majuok@kiwoom.com

Economist/Strategist **전지원**

02) 3787-5231

jiwon@kiwoom.com

키움증권

CREDIT

Contents



1. 주간 증시: 2,000pt 부근에서 마감할 듯	3
2. 국내외 주요 이슈: 엔화 약세	4
3. 주간 경제 전망: 글로벌 경기의 완만한 회복	6
4. 외환시장 동향 및 전망: 달러화 보험권 등락	8
5. 수급동향: Flight to Return	10
6. Earnings & Valuation: Multiple 회복구간	11
7. 해외 증시 동향	12
Chart & Table	13

2,000pt 부근에서 마감할 듯

>>> 여전히 재정절벽 합의 여부가 관건

연내 타결을 위해서는 29일까지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며, 여전히 재정절벽 협상이 올해 중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남아있음. 어쩌면 미국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더라도 올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음.

>>> 업종별 움직임을 결정할 요인은?

지난 주 중국 경제공작회의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 중국 SOC투자자 관련된 소재 및 산업재 등의 반등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엔화 약세 현상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될 듯. 뉴욕환시에서 이미 엔 숏 포지션이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 다만, 장기적인 엔화 약세 추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남아있음. 이에 따른 자동차 및 IT부품주의 조정은 조금 더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한편, 이번 주 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 대형 금융기관의 M&A와 러시아 가스관 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음.

>>> 이머징으로의 자금유입 지속 중

이머징 관련 글로벌 펀드로의 자금유입 흐름이 15주 연속 이어지고 있음. 지난 주 이머징 관련 글로벌 펀드는 44억 8,000만 달러가 순유입. 특히 아시아 이머징 지역으로의 자금유입이 최근 이머징 펀드로의 자금유입 흐름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

1. 주간 증시: 2,000pt 부근에서 마감할 듯

>>> 국내증시 주간 전망

이번 주 국내 증시, 조정보다는 완만한 상승 예상

올해 국내 주식시장(KOSPI)의 종가는 2,000pt 부근으로 판단된다(1,950~2050pt). 여전히 미국의 '재정절벽' 합의 여부가 관건이다. 다만, 양측이 타협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연내에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판단이다.

지난 주 '재정절벽' 협상이 이어졌지만, 진전은 없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연소득 100만 달러 미만 가구의 감세혜택 연장이 포함된 이른바 '플랜 B'를 제시했다. 또한 하원의 표결을 강행했지만, 공화당 내부 반발로 표결이 무산됐다. 지난 21일 오바마 대통령은 '일정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크리스마스 휴가가 끝나고 나서 연말까지 공화당과 부분적인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의회를 압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조건은 중산층의 세금 인상 방지와 실업 보험 연장 등이다. 한편, 미국 의회 의원들은 크리스마스 휴가를 끝내고 오는 27일에 워싱턴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결국, 연내 타결을 위해서는 29일까지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며, 여전히 재정절벽 협상이 올해 중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남아 있다. 어쩌면 미국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더라도 올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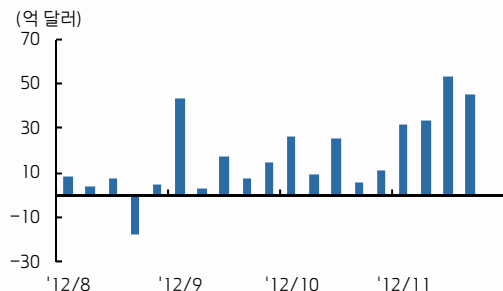
업종별 움직임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이번 주 중국 주식시장은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 급등 이후 조정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의 추세적인 반등과 거래량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 지난 주 경제공작회의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며, 내년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중국 SOC투자과 관련된 소재 및 산업재 등의 반등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엔화 약세 현상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주 일본은행은 최근 정치권의 압박에 밀려 추가 완화 조치를 취했다. 뉴욕환시에서 이미 엔 숏포지션이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조만간 달러화가 85엔을 상향 돌파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장기적인 엔화 약세 추세가 진행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에 따른 자동차 및 IT부품주의 조정은 조금 더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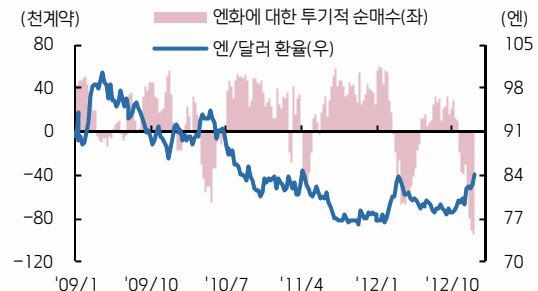
한편, 이번 주 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로드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른 테마주 형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형 금융기관의 M&A와 러시아 가스관 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이머징 관련 글로벌 펀드 자금유출입 추이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순포지션 추이



자료: CFTC, Datastream

2. 국내외 주요 이슈: 엔화 약세

일본 정부 및 BOJ, 엔화 약세전환 노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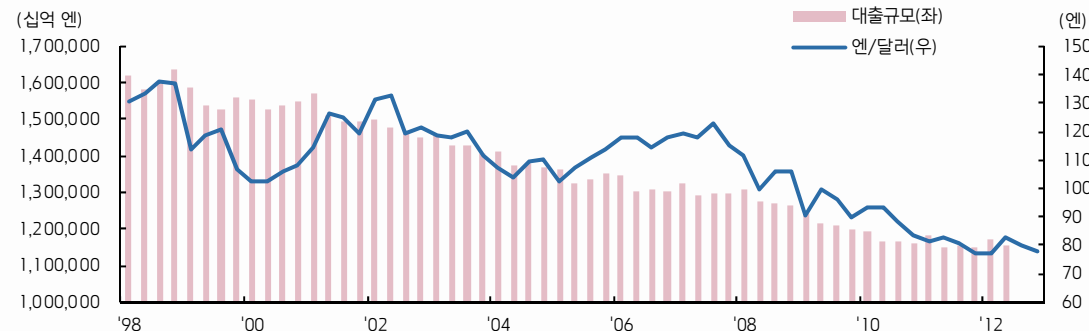
엔/달러 환율은 11월 중순 이후 빠른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무제한 양적완화를 주장해온 일본 자민당의 총선 승리 기대감 및 승리 후 BOJ의 조치 등은 엔/달러 환율 반등세를 견인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20일 BOJ는 엔화 대출프로그램 실시 등 추가 부양이 엔화 가치 하락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시라가와 마사아키 총재는 일본 기업들이 해외 M&A를 위해 엔화를 다른 통화로 전환하면 해외자금 유입으로 엔화 강세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일본 은행들이 헤지펀드 등 비 일본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엔화 강세의 역사적 흐름과 구조적인 배경

엔/달러 환율의 강세는 일본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고착화되었다. 일본 정부는 1990년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10년 동안 110조 엔 이상의 자금을 투입했다. 또한 2001년 3월에 BOJ는 세계 최초로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2003년 1월부터는 2004년 3월까지 엔화 강세를 저지하려고 BOJ가 무려 35조 엔을 매도하기도 했다. 금융위기 발생 이후 BOJ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은 11조 엔으로 확대되었고, 무제한 은행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엔화 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본 정부 및 BOJ의 유동성 공급은 미 재무부의 TARP 및 Fed, ECB의 양적완화 보다 8년 정도 전부터 단행되었지만, 그 결과는 실패였던 것이다.

1990년 이후 일본 정부 및 BOJ의 노력에도 엔화가 약세로 전환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 디 레버리징이라는 구조적인 배경에 따른 디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디 레버리징 상황이 레버리징으로 전환하려면 강력한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강력한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실업률의 상승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실업률이 1990년대 5%를 상회하지 않았다는 사실(최고 4.8%)에서 나타나듯, 일본은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았다. 급격한 구조조정의 아픔을 피한 결과는 고용시장의 안정이라는 선물과 함께 장기적인 디 레버리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기업들의 비용감소 노력에 따른 임금상승률의 둔화는 디플레이션 현상을 강화시켰다. 1994년 이후 전산업 평균 임금상승률은 -1.7%를 기록 중이다.

일본 은행권 대출규모 vs 엔/달러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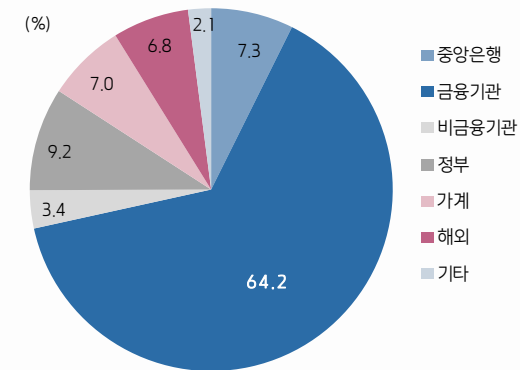
장기금리 상승 시, 디 레버리징 강화될 수 있어

특히 일본은 구조조정 대신에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 위기비용을 사회화했다. 이 과정에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수준인 236.6%로 급등했고, 특히 금융기관들의 국채보유 비율이 상승했다. 이는 국채금리 상승 시 금융기관들의 막대한 자본손실 발생과 디 레버리징이 가속화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IMF는 지난 10월 이러한 일본 은행의 대규모 국채 보유에 대해서 경고했다. 일본 은행들의 국채 보유비중은 총 자산 중 25%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 평균보다 5배 많은 수준이다. 이러한 구조는 재정위기가 발생할 경우, 은행위기로 전이되기 쉬운 구조이다. 즉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면, BOJ의 무제한 금융완화정책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버냉키가 BOJ 총재가 되더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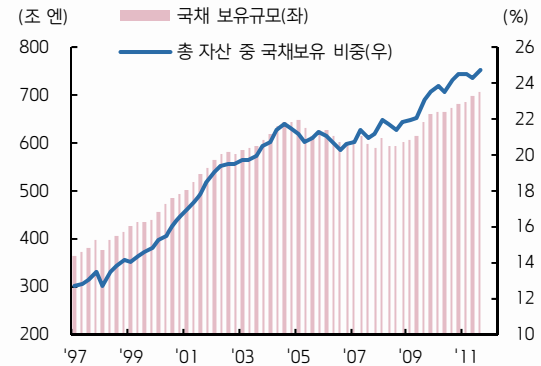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최근 엔/달러 환율의 반등세는 구조적인 환경의 변화보다는 모멘텀 플레이의 영역으로 판단된다. BOJ의 유동성 공급은 그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장기적인 디 레버리징 현상은 이를 압도했다. 특히 장기 국채 금리 상승 시 발생할 막대한 자본손실과 디 레버리징 강화 가능성을 감안하면, BOJ의 국채비중 확대는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BOC 총재였던 마크 카니는 금융위기 발생 이후 선제적인 금융완화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BOE 총재로 스카우트 되었다. 하지만 버냉키 FRB 의장이 BOJ 총재가 되더라도 엔화 약세전환과 경기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일본 국채 보유비중 현황



자료: BOJ

일본 은행 총자산 대비 국채비중 추이



자료: BOJ

3. 주간 경제 전망: 글로벌 경기의 완만한 회복

>>> 국내 경제

11월 광공업생산, 전년동월비 0.7% 증가 예상

11월 광공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 생산 및 수출입 등이 증가세를 시현했고, 내수 역시 다소나마 회복됐을 것이다. 한편, 백화점 및 할인점 매출은 추운 날씨에 힘입어 10월에 비해 개선됐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가격 하락과 가계부채 문제 등의 영향으로 소비지출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미국 경제

'재정절벽' 협상과 주택경기 회복

주택시장 회복은 이어질 전망이다. 연준(Fed)의 금융완화 및 저금리 기조, 소득증가, 주택차압감소 등에 힘입어 주택시장은 자율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판단이다. 11월에도 신규주택판매가 전월보다 증가했을 것이며, 주택가격 역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는 기업 및 소비자 신뢰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주 재정절벽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연내 합의는 어렵다. 그러나, 양측이 타협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국 경제

경기반등 가능성 높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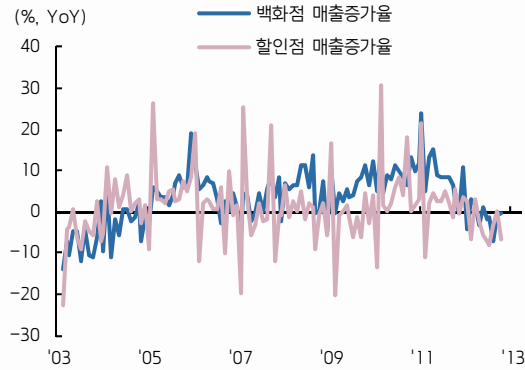
올해 4/4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 3/4분기(7.4%)보다 개선된 7.8% 전후로 전망된다. 월별 주요 경제지표의 개선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경기에 선행하는 PMI지수는 50을 상회했다. 정부의 내수시장 확대와 도시화 가속화 등의 경제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11월 경기선행지수는 금융지표 및 PMI지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했을 것이다.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2.24~12.28)

날짜	국가	경제지표	대상	중요도	전망치	이전치
12월 26일	한국	백화점 매출(YoY)	11월	C	NA	-0.4%
		할인점 매출(YoY)	11월	C	NA	-6.6%
		소비자기대지수	12월	C	NA	99
	미국	S&P/CS 주택가격지수	10월	B	NA	146.22
12월 27일	한국	BSI-제조업(SA)	1월	C	NA	67
		박재완 장관 2013년 경제전망 발표				
	미국	신규주택판매(SAAR)	11월	A	380K	368K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SA)	12월 3주	B	366K	361K
		미국 상원 예산관련 소집				
	유럽	이탈리아 국채입찰				
		이탈리아 국채만기(30억 유로)				
12월 28일	한국	광공업생산(YoY)	11월	A	0.6%	-0.8%
		경상수지	11월	B	NA	\$5820.1M
	미국	시카고 PMI	12월	A	51.0	50.4
	중국	경기선행지수	11월	B	NA	100.42
	유럽	이탈리아 국채입찰				
		포르투갈 국채만기(3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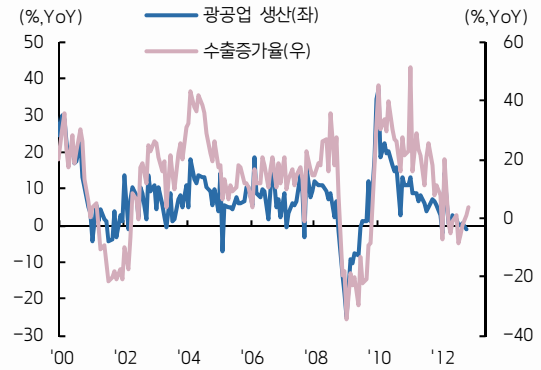
주 '중요도'는 경제지표의 영향력을 표시한 것으로, A는 경제전망에 큰 도움이 되는 핵심 변수를 지칭.

국내 백화점 및 할인점 매출 증가율



자료: 지식경제부

국내 광공업생산 및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지식경제부

미국 기존 및 신규 주택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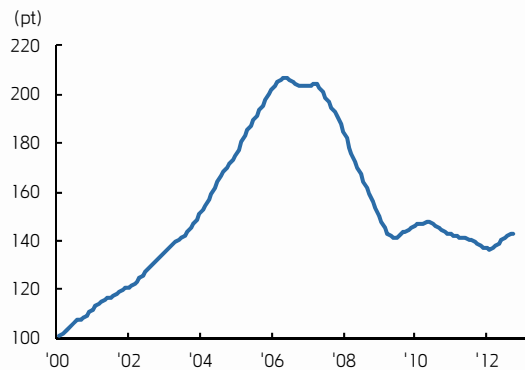
자료: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U.S. Census Bureau

미국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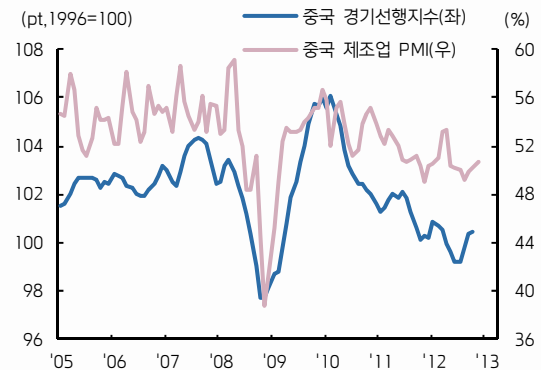
자료: Department of Labor

미국 S&P/CS 주택가격지수



자료: Case-Shiller

중국 경기선행지수 및 PMI지수



자료: 중국 통계청, 중국 구매자물류협회

4. 외환시장 동향 및 전망: 달러화 보합권 등락

>>> 지난 주 동향

달러화, '재정절벽' 합의 가능성에 따른 등락

지난 주 달러지수는 전주대비 0.05% 상승 마감했다. 주 초반 달러화는 독일 경제지표 호조와 재정절벽 합의에 대한 낙관론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주말 '재정절벽'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면서 달러화는 유로화대비 강세로 전환했다.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통화 선호현상이 강화됐다. 한편, 지난 주 엔화는 달러화 대비 0.86% 상승했다.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된다면, 엔화의 추가적인 약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엔 숏포지션이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조만간 달러화가 85엔을 돌파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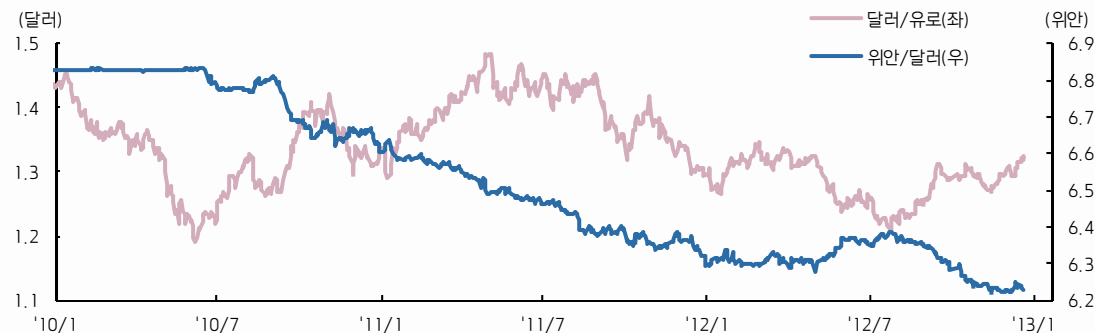
원/달러 환율은 전주대비 0.03% 하락한 1,074.35원에 장을 마감했다. 미국 재정절벽 협상의 난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체의 네고 물량, 외국인의 주식 매수 등의 영향으로 소폭이나마 강세를 기록했다. 다만, 외환당국에 대한 경계와 결제수요 등이 추가적인 하락을 저지했다.

아시아 통화지수 및 달러지수



자료: Datastream

유로화 및 위안화



자료: Datastream

>>> 이번 주 전망

원/달러 환율, 1,070~1,090원 중심 등락 예상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은 1,070~1,090원 중심의 등락이 이어질 전망이다. 외환당국에 대한 경계와 수입업체의 결제수요, 역외 NDF시장에서의 숏커버 물량 등을 감안할 때 1,070선이 쉽게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합의되기 전까지 달러화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힘들 것이다. 더욱이 이번 주 중 미국의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로 원/달러 환율의 일시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1,070~1,090원 부근에서 좁은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마무리 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최근 주요국 통화의 대미 달러환율 변동률

	전주 말 12월 21일	1주 전 대비(%)	11월 말 대비(%)	2011년 말 대비(%)	12월 14일	11월 말	6개월 전	2011년 말
달러/유로	1.3188	0.19	1.56	1.75	1.3163	1.2986	1.2540	1.2961
엔/유로	111.08	1.07	3.71	11.46	109.90	107.11	100.69	99.66
엔/달러	84.24	0.86	2.13	9.53	83.52	82.48	80.28	76.91
위안/달러	6.2302	-0.25	0.06	-1.03	6.2460	6.2266	6.3649	6.2950
원/달러	1,074.35	-0.03	-0.78	-6.78	1,074.68	1,082.85	1,151.59	1,152.45
원/100엔	1,275.38	-0.88	-2.86	-14.90	1,286.73	1,312.92	1,434.47	1,498.75
대만 달러/달러	29.07	0.02	0.04	-4.01	29.06	29.05	29.87	30.28
스위스 프랑/달러	0.9153	-0.27	-1.38	-2.43	0.9178	0.9281	0.9576	0.9381
달러/호주 달러	1.0396	-1.61	-0.31	1.83	1.0566	1.0428	1.0034	1.0209
달러지수	79.62	0.05	-0.67	-0.70	79.58	80.15	82.29	80.18

자료: Datastream

원/달러 환율 vs 엔/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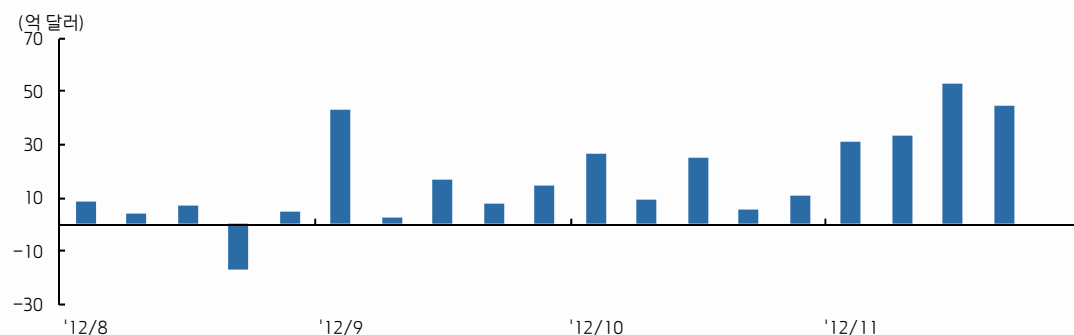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5. 수급동향: Flight to Return

>>> 이머징으로의 자금유입의 핵심은 아시아 이머징

이머징 관련 글로벌 펀드로의 자금유입 흐름이 15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 이머징 관련 글로벌 펀드는 44억 8,000만 달러가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구분 없는 GEM 펀드는 27억 달러가, 일본 제외 아시아 펀드는 16억 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되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 펀드는 6억 9,000만 달러가 유입되었고, 그 다음으로 중국 펀드에 6억 7,000만 달러가 유입 되었다. 한편, 라틴아메리카 펀드는 직전 주 1억 5,000만 달러 순유입과 비슷한 1억 4천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EMEA 펀드는 11주 만에 순유입이 발생했지만 자금유입 규모는 4,000만 달러에 그쳤다. 즉, 아시아 이머징 지역으로의 자금유입이 최근 이머징 펀드로의 자금유입 흐름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머징 관련 글로벌 펀드 자금유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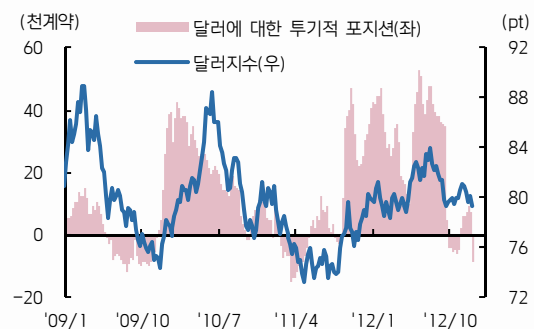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 Risk on Sign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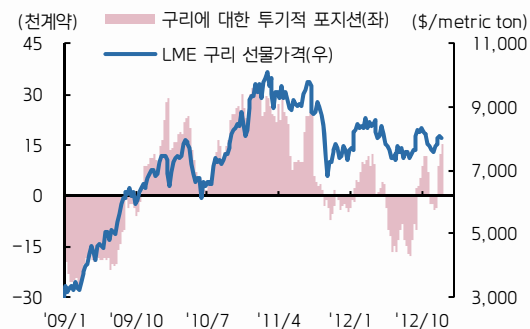
CFTC에서 집계하는 환율 및 주요 상품에 대한 투기적 거래동향을 살펴보면, 재정절벽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위험선도도가 강화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우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투기적 순포지션이 6주 만에 숏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유로화에 대한 투기적 숏포지션은 빠르게 청산되고 있다. 한편, 구리에 대한 투기적 롱포지션은 2주 연속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투기적 거래들의 움직임은 재정절벽 우려가 남아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초점이 유럽 재정위기 완화 및 중국 경기 회복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달러화에 대한 투기적 순포지션 추이



자료: CFTC, Datastream

구리에 대한 투기적 순포지션 추이



자료: CFTC, LME

6. Earnings & Valuation: Multiple 회복구간

>>> 핵심은 기업실적 전망보다는 밸류에이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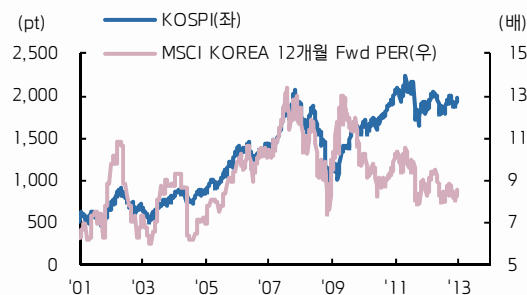
기업실적 전망의 뚜렷한 변화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MSCI KOREA 12개월 Fwd EPS는 직전 주 대비 0.2% 하향 조정되었다. 업종별로도 IT만이 추세적인 실적전망 상향조정 흐름이 관찰될 뿐 이다. 하지만 경기의 변곡점 특히 저점에서 회복 양상을 나타내는 구간에서, 기업실적 전망의 상향조정이 주가 추가상승의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경기 저점을 확인하고 향후 회복기대감이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우선 과도한 우려로 낮아진 Multiple의 반등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기업실적 전망의 중요성은 Multiple이 어느 정도 회복 양상을 보인 이후부터 높아진다. 현재 MSCI KOREA 12개월 Fwd PER은 8.5배(2000년 이후 평균 9.1배)에 불과하다. 특히 채권 시장 대비 주식시장의 매력은 금융위기 수준이다.

주요 지역 및 증시 EPS 추정치 변화율

구분	지역 및 국가	12개월 Forward 기준				2012년 실적전망 기준			2013년 실적전망 기준			PER
		1W	1M	3M	6M	1M	3M	6M	1M	3M	6M	
대륙	AC World	-0.1	-0.2	-0.3	-0.7	-0.9	-1.9	-4.8	-1.1	-3.1	-6.0	12.1
	AC Asia-Pacific	-0.2	-0.2	-1.2	-2.1	-1.8	-6.6	-10.7	-1.7	-4.1	-7.3	11.9
	AC Asia-Pac. Ex. JP	-0.1	0.7	2.1	1.1	-0.4	-0.3	-2.8	-0.4	-0.8	-5.1	11.8
	AC Americas	0.2	-1.2	0.1	-0.8	-1.8	-1.0	-3.9	-2.0	-2.6	-6.4	12.9
	AC Europe	-0.5	1.8	-0.3	0.8	1.5	-0.1	-1.9	1.0	-3.0	-4.1	10.9
선진 시장	World	-0.2	-0.4	-0.6	-0.9	-1.0	-2.0	-4.8	-1.3	-3.4	-6.3	12.4
	G7	-0.1	-0.7	-0.8	-1.4	-1.3	-2.0	-5.0	-1.6	-3.5	-6.7	12.3
신흥 시장	Emerging Market	0.4	0.8	1.0	0.7	-0.1	-1.8	-5.3	-0.2	-1.8	-4.6	10.4
	Emerging Market Asia	0.1	0.7	3.5	2.1	-0.7	0.0	-4.3	-0.4	0.3	-4.4	10.8
아시아 태평양 (8)	KOREA	-0.2	1.0	2.3	2.5	-1.1	-1.7	-6.4	-0.2	-1.6	-4.2	8.5
	JAPAN	0.2	1.7	-1.5	-4.2	-1.2	-13.3	-21.3	-0.4	-4.1	-7.8	12.3
	CHINA	-0.4	-0.5	1.2	-4.3	-1.3	-1.2	-7.5	-1.2	-1.0	-9.4	9.8
	INDIA	0.0	-0.6	0.6	0.9	-1.7	-3.1	-5.9	-1.8	-2.5	-5.5	14.2
	TAIWAN	0.4	2.5	4.3	-1.7	1.3	-2.2	-11.8	0.8	-0.5	-11.0	14.3
	SINGAPORE	-0.1	-0.4	-1.9	-2.0	-0.6	-1.1	-0.6	-0.6	-3.2	-6.5	13.7
	HONG KONG	0.0	0.7	1.9	2.5	0.2	-1.5	-3.0	-0.2	-0.5	-3.0	15.1
	AUSTRALIA	-0.6	0.1	-1.8	-8.4	-0.5	-4.1	-4.6	-0.6	-3.8	-3.0	13.1
	USA	0.2	-1.3	0.3	-0.6	-1.9	-0.4	-3.2	-2.1	-2.3	-6.3	12.9
아메리카 (4)	CANADA	-0.8	-2.2	1.8	-3.4	-2.6	-0.3	-7.9	-3.1	-1.2	-9.3	12.8
	BRAZIL	-0.5	-1.3	-3.6	-7.6	-2.1	-9.3	-17.9	-2.7	-6.9	-12.2	10.4
	MEXICO	0.0	-0.1	2.7	-2.5	0.5	1.7	-6.6	-1.3	-1.0	-9.9	17.2
유럽 (5)	UK	-0.3	-0.5	-1.8	-6.1	-0.8	-1.8	-8.1	-1.2	-4.2	-10.4	10.8
	FRANCE	-0.4	0.2	-1.3	-2.6	0.6	-1.0	-5.3	-0.6	-3.8	-7.5	11.0
	GERMANY	-0.1	-0.8	-1.9	-2.1	0.4	7.4	5.9	-0.9	-4.5	-7.9	10.9
	ITALY	-0.3	-0.4	-3.6	-8.7	-0.9	-4.1	-11.7	-1.2	-6.4	-14.4	9.1
	RUSSIA	1.4	3.4	-1.4	3.4	3.0	-1.0	2.0	3.4	-1.3	5.5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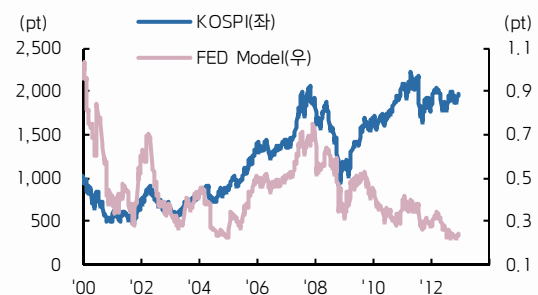
자료: IBES

KOSPI vs MSCI KOREA 12개월 Fwd PER



자료: IBES

KOSPI vs Fed Model



자료: IBES

7. 해외 증시 동향

>>> 지난 주 다우지수, 0.42% 상승

경제지표는 호조세를 나타냈지만, 재정절벽 협상 불확실성이 상승탄력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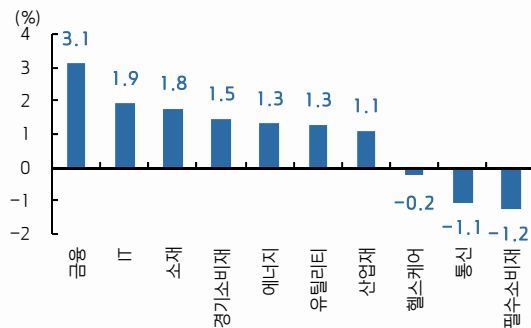
지난 주 미 증시는 강 보합권으로 마감했다. 한 주간 경제지표 호조세를 나타냈지만, 재정절벽 합의안에 대한 하원 표결이 무산되면서 주 초반의 지수 상승 폭을 반납했다. 주 초반, 베이너 하원의장은 일부 부자증세를 수용할 뜻을 밝힌 뒤, 오바마 대통령과 본격적인 협상을 재개했다. 비록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가구 증세안을 반대했지만, 일주일간 3번째 협상 회동을 이어가는 등 재정절벽 합의 기대감을 높였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일명 플랜 B에 대한 하원 표결처리를 강행하면서도 오바마 대통령과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 통과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공화당 내에서도 플랜 B에 대한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서 표결은 결국 무산됐다. 지난 11월 미국의 기존 주택판매는 2년 이래 최고 수준(504만채)을 기록하는 호조를 나타냈고 10월 주택가격은 전월대비 0.5%, 전년대비 5.6% 상승했다. 허리케인 샌디의 여파로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였던 12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는 전월 -10.7pt에서 8.1pt로 급등했다.

>>> 지난 주 상하이 종합지수, 0.12% 상승

상승 폭 확대 이후 조정양상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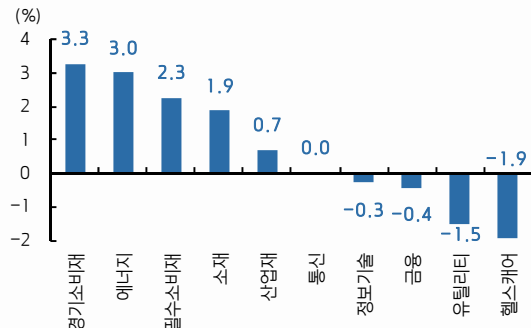
지난 주 중국증시는 강 보합권에 머물렀다. 경제공작회의 이후, 차기정권이 펼칠 정책과 2013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수의 추가상승 폭이 컸던 만큼 금융주를 중심으로 조정양상이 나타나며 상승 폭을 제한했다. 지난 18일 주요 경제지표 중 70개 지역의 11월 부동산 시장 동향이 발표되었다. 신규상품방의 경우 가격이 상승한 도시가 53개로 전달보다 18개 도시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또한 11월 자동차 판매 역시 전년대비 8.2% 증가하며 수요가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뿐 아니라 지난주 국무원과 발개위는 SOC투자 이외에도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강조해 전력에 대한 투자 역시 강화될 것을 언급해 투자중심의 경기회복 기대감은 더욱 확대되었다.

S&P 500 업종별 주간 등락률



자료: DataStream

심호 300 업종별 주간 등락률



자료: DataStream



Chart & Table

>>> 증시 주요지표

거래소 시장

구분			12/14	12/17	12/18	12/20	12/21
가격 지표	KOSPI		1,995.04	1,983.07	1,993.09	1,999.50	1,980.42
		등락폭	-7.73	-11.97	+10.02	+6.41	-19.08
		(시가)	1,989.42	1,993.18	1,990.72	2,002.11	2,004.61
		(고가)	1,999.65	1,999.38	1,993.09	2,006.08	2,004.67
		(저가)	1,985.19	1,981.13	1,979.22	1,991.81	1,976.09
		대형주 지수	1,992.72	1,980.83	1,990.95	1,998.10	1,976.67
		중형주 지수	2,063.98	2,055.39	2,067.24	2,068.19	2,068.09
		소형주 지수	1,299.86	1,292.65	1,291.79	1,293.55	1,288.11
	등락종목	상승 (상한가)	381 (5)	310 (4)	429 (6)	411 (15)	361 (3)
		하락 (하한가)	410 (5)	501 (3)	385 (1)	396 (3)	447 (4)
	이동평균	(5일)	1,979.06	1,984.19	1,989.88	1,994.69	1,990.22
		(20일)	1,935.10	1,940.35	1,945.49	1,951.27	1,955.31
		(60일)	1,937.78	1,937.66	1,937.51	1,937.44	1,937.26
		(120일)	1,911.96	1,913.34	1,914.79	1,916.00	1,917.07
	이격도	(5일)	100.81	99.94	100.16	100.24	99.51
		(20일)	103.10	102.20	102.45	102.47	101.28
	투자심리	(%)	70	60	70	70	60
거래량 지표	시가총액	(십억원)	1,153,320	1,145,820	1,151,740	1,155,236	1,144,397
	거래량	(천주)	350,496	366,677	454,272	421,933	553,671
		이동평균 (5일)	400,812	400,635	410,524	402,967	429,410
		이동평균 (20일)	385,518	386,384	390,480	392,537	399,580
	거래대금	(십억원)	4,320	4,301	4,642	5,537	5,362
		이동평균 (5일)	4,665	4,786	4,803	4,969	4,832
		이동평균 (20일)	4,129	4,181	4,227	4,304	4,384
매매 주체별 순매수	개인	(억원)	151	-263	-2,587	-2,917	-2,378
	외국인	(억원)	802	1,716	2,208	3,129	3,793
	기관	(억원)	-818	-1,274	375	1,754	-726
	일반법인	(억원)	-125	-181	53	-1,930	-696
	프로그래매매	(억원)	3,619	4,606	4,470	6,752	6,150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코스닥 시장

구분			12/14	12/17	12/18	12/20	12/21
가격 지표	KOSDAQ		491.65	485.48	483.19	479.21	478.06
		등락폭	+1.50	-6.17	-2.29	-3.98	-1.15
		(시가)	489.68	493.14	487.09	485.29	480.41
		(고가)	493.00	493.22	487.68	486.41	481.40
		(저가)	489.68	485.48	480.57	479.21	475.71
	등락종목	상승 (상한가)	514 (6)	330 (14)	367 (7)	390 (15)	337 (4)
		하락 (하한가)	390 (2)	597 (5)	529 (4)	544 (9)	580 (6)
	이동평균	(5일)	487.66	486.84	487.16	485.94	483.52
		(20일)	493.60	493.22	492.55	491.90	490.95
		(60일)	511.34	510.63	509.82	508.94	508.19
		(120일)	500.73	500.75	500.73	500.64	500.54
	이격도	(5일)	100.82	99.72	99.19	98.62	98.87
		(20일)	99.60	98.43	98.10	97.42	97.37
	투자심리	(%)	60	60	50	50	50
거래량 지표	시가총액	(십억원)	107,686	106,527	106,055	105,153	105,462
	거래량	(천주)	337,429	315,004	325,265	342,515	333,417
		이동평균 (5일)	321,756	324,299	319,364	321,906	330,726
		이동평균 (20일)	394,439	390,299	384,718	381,278	374,226
	거래대금	(십억원)	1,431	1,374	1,478	1,511	1,518
		이동평균 (5일)	1,466	1,447	1,419	1,427	1,462
		이동평균 (20일)	1,744	1,731	1,708	1,694	1,680
매매 주체별 순매수	개인	(억원)	-169	424	158	466	-70
	외국인	(억원)	-80	-296	29	-27	190
	기관	(억원)	167	107	-216	-440	-109
	일반법인	(억원)	86	-232	27	14	-17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 증시 자금동향

역내 펀드 자금유출입

	11년 말	주간증감	12/14	12/17	12/18	12/20
고객예탁금	174,270		172,225	172,203	172,232	173,933
(증감)		-3,241	-4,948	-23	+29	+1,701
신용융자 (거래스)	28,867		23,077	22,766	23,009	23,038
(증감)		-255	-216	-311	+244	+29
신용융자 (코스닥)	15,266		17,775	17,780	17,773	17,694
(증감)		-61	+21	+5	-7	-79
미수금	1,859		1,143	931	982	1,179
(증감)		-158	-195	-211	+51	+197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	795,740		746,330	747,049	746,299	743,335
(증감)		-6,781	-3,786	+719	-750	-2,965
국내 공모 주식형 수익증권(Index펀드 포함)	698,115		663,309	664,314	663,603	660,726
(증감)		-6,359	-3,776	+1,006	-711	-2,878
국내 공모 주식형 수익증권(Active)	568,003		505,399	503,760	502,695	500,994
(증감)		-6,417	-2,011	-1,639	-1,065	-1,701
국내 사모 주식형 수익증권	97,625		83,022	82,735	82,696	82,609
(증감)		-423	-10	-287	-39	-87
해외 주식형 수익증권	339,279		285,948	285,538	284,946	284,516
(증감)		-1,610	-178	-410	-592	-430
주식혼합형 수익증권	119,742		101,628	101,358	101,207	101,036
(증감)		-773	-181	-270	-151	-171
해외 주식혼합형 수익증권	33,174		26,501	26,477	26,443	26,406
(증감)		-158	-63	-24	-34	-37
채권혼합형 수익증권	182,256		193,738	193,617	193,325	193,154
(증감)		-727	-143	-121	-292	-171
채권형 수익증권	448,436		466,737	469,218	469,386	469,197
(증감)		-7	-2,467	+2,481	+168	-189
MMF	654,643		729,063	724,379	727,368	716,805
(증감)		+6,849	+19,107	-4,684	+2,989	-10,563

자료: 자산운용협회, 제로인, 키움증권

>>> 외국인/기관 주간 순매수/순매도 상위 종목

외국인 (KOSPI) (단위: 억원)

순위	종목명	순매수 거래대금	순매도 거래대금
1	KODEX 200	1,217	1,202
2	LG화학	1,149	440
3	삼성전기	988	265
4	오리온	979	253
5	현대중공업	592	147
6	호남석유	523	139
7	한국전력	514	114
8	SK이노베이션	451	101
9	KB금융	445	94
10	하나금융지주	438	83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기관 (KOSPI) (단위: 억원)

순위	종목명	순매수 거래대금	순매도 거래대금
1	오리온	798	1,325
2	POSCO	708	1,090
3	KT	649	982
4	한국전력	647	502
5	신한지주	584	496
6	SK텔레콤	335	462
7	현대제철	265	330
8	우리금융	253	328
9	대우조선해양	228	295
10	케이피케이칼	217	267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외국인 (KOSDAQ) (단위: 억원)

순위	종목명	순매수 거래대금	순매도 거래대금
1	셀트리온	130	79
2	파라다이스	46	69
3	멜파스	33	41
4	신화인터텍	32	32
5	플렉스컴	22	31
6	메가스터디	20	29
7	에스에프에이	18	25
8	태웅	18	24
9	골프존	18	23
10	CJ오쇼핑	15	22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기관 (KOSDAQ) (단위: 억원)

순위	종목명	순매수 거래대금	순매도 거래대금
1	서부T&D	268	233
2	위메이드	46	99
3	셀트리온	34	99
4	CJ오쇼핑	33	75
5	웰크론한텍	27	74
6	모두투어	27	70
7	포스코엔텍	25	64
8	코오롱생명과학	24	52
9	비메이치	21	47
10	에이모션	19	36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 Technical Approach

전고점 돌파종목 (단위: 원)

KOSPI	전일 종가	KOSDAQ	전일 종가
코웨이	43,450	KNN	7,680
한일시멘트	49,700	NICE평가정보	5,400
CJ	120,000	동국제약	23,950
한화생명	8,150	아이디스	74,600
대우조선해양	27,900		
SK텔레콤	161,000		
BS금융지주	13,600		
한국단자	29,450		
KPX케미칼	55,200		
롯데쇼핑	371,000		

주: 전일 종가가 3개월 이내 최고종가인 종목 중 주가등락을 상위 종목

이격 확대종목 (단위: %)

KOSPI	이격도	KOSDAQ	이격도
대한전선	76	조이맥스	77
LG디스플레이	89	컴투스	79
고려아연	90	게임빌	80
CJ대한통운	92	제닉	80
NHN	93	KG모빌리언스	82
동아원	94	인터플렉스	83
대상	95	서희건설	84
한국가스공사	95	KG이니시스	84
엔씨소프트	95	바텍	85
일진디스플레이	95	사파이어Techn.	85

주: 20일 이격도 기준 이격확대(이격도 98% 이하) 상위 종목

Stochastic Slow 신호 발생종목 (단위: %)

KOSPI	Slow %K	KOSDAQ	Slow %K
KT&G	23	보령메디앙스	30
		35	29
		EMLSI	24
		스틸플라워	23
		동화홀딩스	21
		서희건설	20

주: Slow %K가 20% 선을 상향 돌파하는 종목

외국인 지분율 확대종목 (단위: %)

KOSPI	외국인 지분율	KOSDAQ	외국인 지분율
없음		신화인터넷	6.32
		원스텍넷	5.12
		뉴웍스	4.98
		크루셀텍	3.78

주: 20 거래일 대비 외국인 지분율 3% 이상 확대 종목

상한가 종목 (단위: 원)

KOSPI	전일 종가	KOSDAQ	전일 종가
없음		액토즈소프트	30,750

주: 최근 10일 중 첫 상한가 기록 종목

단기 골든크로스 발생종목 (단위: 원)

KOSPI	전일 종가	KOSDAQ	전일 종가
동아제약	111,000	한글과컴퓨터	19,950
에스씨엔지니어링	2,550	바이오랜드	14,000
하이트진로홀딩스	16,350		
하이스틸	22,500		
삼호	1,700		
삼영전자	8,700		
LIG손해보험	25,700		
마니커	611		
다우기술	15,450		
남선알미늄	440		

주: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돌파한 종목 중 주가등락을 상위 종목

거래 급증종목 (단위: %)

KOSPI	거래증가율	KOSDAQ	거래증가율
쌍용양회	709.94	스틸플라워	891.36
동아제약	313.81	대아티아이	501.48
농심	173.32	IMBC	316.08
빙그레	171.92	EMLSI	245.02
한솔제지	150.83	EG	205.76
하이트진로홀딩스	112.06	보령메디앙스	195.58
코웨이	107.28	인프라웨어	195.52
KT&G	73.22	완리	192.40
NHN	51.77	액토즈소프트	158.37
동양	46.69	아가방컴퍼니	155.22

주: 전일 3% 이상 주가 상승 종목 중 20일 평균대비 50% 이상 거래증가 종목

기관 매수세 유입 종목 (단위: %)

KOSPI	주가 등락율	KOSDAQ	주가 등락율
쌍용양회	6.07	인포피아	3.62
코웨이	3.58	한글과컴퓨터	3.10
유한양행	2.99	매일유업	2.93
성진지오텍	2.90	NICE평가정보	2.27
한화생명	2.52	메디톡스	2.13
대우조선해양	1.64	셀바이오텍	1.55
외환은행	1.46	모두투어	1.40
현대중공업	1.46	이트레이드증권	1.14
우리금융	1.28	GS홈쇼핑	1.11
SK텔레콤	1.26	YG엔터테인먼트	1.05

주: 최근 10일 중 7일 이상 기관 순매수 유입 종목 중 등락을 상위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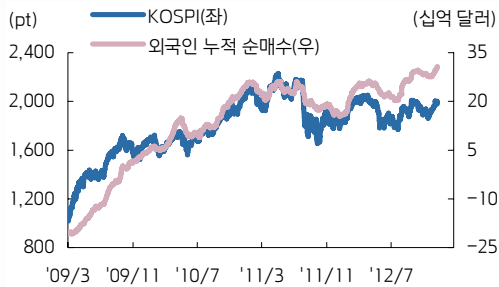
>>> 아시아 증시 외국인 및 Global Fund Flow 동향

외국인, 지난 주 전반적 매수우위 (단위: Mil \$, %, pt)

	대표지수 동향			외국인 순매수 금액			
	12월 21일	동락률	12월 14일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누적
한국	1,980.42	-1.0	66.0	1,058.3	3,164.4	1,892.1	8,410.6
대만	7,540.14	0.3	5.4	-485.9	2,984.9	2,490.3	4,718.2
인도	19,242.00	-0.1	115.1	932.4	4,151.7	10,334.7	14,634.3
태국	1,373.38	-0.3	27.2	250.5	1,094.9	234.7	522.8
필리핀	5,823.94	0.5	145.6	210.5	308.0	300.5	1,588.4
인도네시아	4,250.21	-0.1		51.5	-34.9	4.7	1,403.6
일본	9,940.06	-1.0	-	4,664.8	11,657.4	13,855.2	9,1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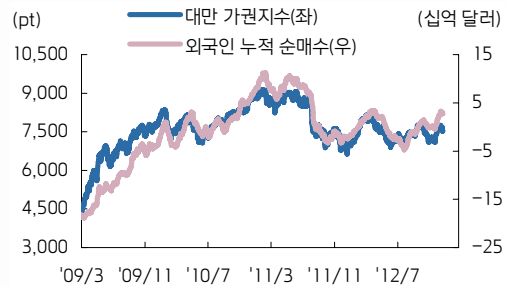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키움증권 주: 외국인 순매수 금액: 일본 1주 지연 데이터, 인도 1일 지연 데이터

한국 증시(KOSPI) vs 외국인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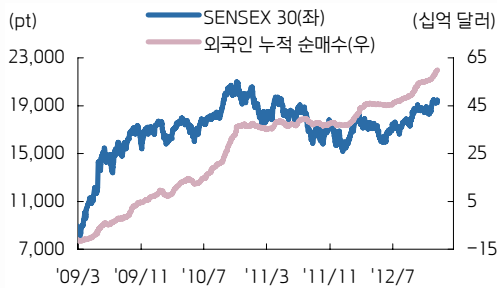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대만 증시(TWSE) vs 외국인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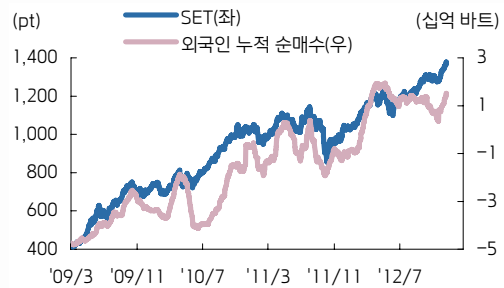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인도 증시(SENSEX) vs 외국인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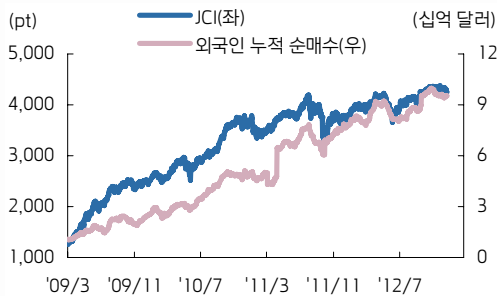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태국 증시(SET) vs 외국인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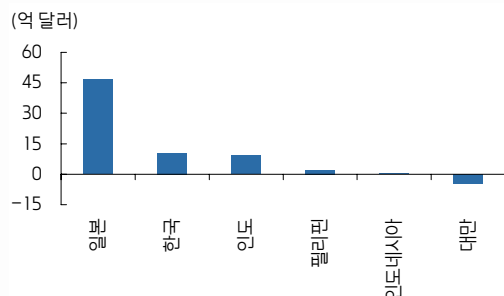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인도네시아(JCI) vs 외국인 순매수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지난주 아시아 증시 외국인 매매 동향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 MSCI 주요 지역별 실적전망 변화

세계 주요업종 실적전망 변화 (단위 %, 배)

소재, 경기소비재,
IT 업종 하향조정

	12개월 Forward EPS 변화율				2012년 EPS 변화율			Revision Ratio				PER
	1W	1M	3M	6M	1M	3M	6M	1W	1M	3M	6M	
전체	-0.1	-0.2	-0.3	-0.7	-0.9	-1.9	-4.8	-18.2	-26.6	-21.0	-23.7	12.1
에너지	0.2	-0.9	-1.5	-5.8	-1.1	-0.5	-6.8	-28.3	-36.8	-21.3	-50.3	10.0
소재	-0.8	-0.5	-4.4	-12.4	-1.5	-8.3	-20.4	-43.6	-43.3	-56.2	-40.9	12.0
산업재	-0.1	-1.5	-2.5	-2.1	-2.3	-4.0	-5.8	-30.9	-46.3	-40.7	-27.5	12.6
경기소비재	-0.6	-0.9	-1.5	-0.2	-1.4	-4.7	-6.3	-17.0	-25.7	-6.2	-20.1	13.3
필수소비재	0.2	0.7	1.5	4.5	0.1	-0.9	0.1	-14.9	-18.4	-22.9	-20.9	15.8
의료	0.2	-0.2	0.8	2.9	-0.6	0.1	0.4	-2.2	0.8	12.0	-6.0	13.2
금융	0.2	-0.1	1.6	3.2	-1.3	-1.4	-2.1	-2.8	-5.8	-11.0	-13.7	10.6
IT	-0.5	0.4	-0.1	-1.9	-0.3	-0.3	-5.6	-8.6	-39.8	-22.5	-16.0	12.3
통신서비스	1.0	4.2	15.1	35.6	3.2	11.2	25.2	-33.3	-26.7	-3.5	-23.0	12.1
유틸리티	0.0	1.5	1.3	2.9	3.7	4.1	2.3	-10.4	-23.7	-7.4	-24.1	14.0

한국 주요업종 실적전망 변화 (단위 %, 배)

유틸리티, 산업재,
의료, 소재 업종
하향조정

	12개월 Forward EPS 변화율				2012년 EPS 변화율			Revision Ratio				PER
	1W	1M	3M	6M	1M	3M	6M	1W	1M	3M	6M	
전체	-0.2	1.0	2.3	2.5	-1.1	-1.7	-6.4	-31.1	-35.2	-28.0	-29.6	8.5
에너지	-0.2	1.9	1.7	-8.9	-2.3	-8.4	-29.4	33.3	-100.0	-100.0	-100.0	8.5
소재	-0.6	-3.4	-10.6	-16.1	-4.7	-14.0	-25.1	-54.5	-50.0	-38.5	-28.6	9.8
산업재	-1.6	-2.3	0.0	-1.8	-1.9	0.4	-6.5	-29.2	-33.3	-33.3	-28.6	9.2
경기소비재	-0.1	-0.7	0.3	5.5	-1.8	-1.2	1.4	-33.3	-27.3	-8.3	-8.3	6.8
필수소비재	0.0	-3.9	-4.4	-4.4	-2.6	-6.4	-9.5	-40.0	-66.7	-50.0	-50.0	16.1
의료	-1.6	-8.8	-6.6	0.6	-8.0	-14.6	-15.9	-50.0	0.0	0.0	100.0	18.3
금융	-0.2	-1.9	-7.7	-12.2	-1.3	-6.2	-8.4	-55.0	-60.0	-75.0	-45.0	7.6
IT	0.4	5.0	12.0	16.6	0.9	4.8	1.2	37.5	25.0	50.0	-25.0	8.7
통신서비스	0.0	3.4	3.7	6.8	1.2	-3.3	-13.3	33.3	33.3	66.7	-100.0	8.5
유틸리티	-7.7	5.0	65.1	26.4	19.8	53.3	9329.2	-100.0	50.0	100.0	100.0	21.1

미국 주요업종 실적전망 변화 (단위 %, 배)

유틸리티, 산업재,
금융, 필수소비재,
에너지, 의료 업종
상향조정

	12개월 Forward EPS 변화율				2012년 EPS 변화율			Revision Ratio				PER
	1W	1M	3M	6M	1M	3M	6M	1W	1M	3M	6M	
전체	0.2	-1.3	0.3	-0.6	-1.9	-0.4	-3.2	-11.7	-19.9	-5.5	-25.6	12.9
에너지	0.5	-1.9	-0.9	-7.0	-2.0	1.2	-6.2	-45.5	-48.1	-12.7	-52.7	11.4
소재	-0.8	-0.4	-2.1	-5.9	-1.4	-5.8	-14.5	-11.8	-42.9	-34.3	-48.6	12.6
산업재	0.8	-2.2	-1.4	-2.1	-2.8	-1.8	-4.1	-28.8	-64.0	-20.3	-17.3	13.0
경기소비재	-0.5	-1.8	1.4	1.1	-1.5	0.5	-0.3	-5.0	4.1	7.1	-20.4	15.1
필수소비재	0.6	0.3	2.6	3.7	-0.3	0.0	-0.3	4.3	14.9	4.3	-38.3	15.3
의료	0.5	-0.9	1.0	2.1	-1.3	0.4	-0.2	-11.9	0.0	8.6	-15.5	13.0
금융	0.8	-2.4	3.3	3.8	-4.4	-1.6	-2.9	-4.8	-1.9	5.7	-18.4	11.4
IT	-0.8	-0.8	-2.1	-4.2	-1.1	-0.3	-4.5	-4.8	-35.7	-22.4	-25.9	12.1
통신서비스	-0.6	-0.6	5.8	11.3	-2.4	1.6	-1.1	-10.0	-20.0	20.0	27.3	17.8
유틸리티	1.7	-0.9	-0.9	0.4	-1.0	-0.5	0.5	0.0	-21.2	-6.1	-29.4	14.6

중국 주요업종 실적전망 변화 (단위 %, 배)

통신서비스,
경기소비재 업종
하향조정

	12개월 Forward EPS 변화율				2012년 EPS 변화율			Revision Ratio				PER
	1W	1M	3M	6M	1M	3M	6M	1W	1M	3M	6M	
전체	-0.4	-0.5	1.2	-4.3	-1.3	-1.2	-7.5	-27.4	-27.9	-53.9	-50.3	9.8
에너지	-0.3	-0.5	0.5	-8.7	-0.6	0.7	-10.7	-11.1	-33.3	-44.4	-88.9	9.8
소재	-0.1	0.8	-0.4	-19.6	-2.6	-11.4	-35.9	-31.6	-10.0	-76.2	-68.2	10.5
산업재	-0.3	-1.2	-1.6	-10.3	-3.4	-7.5	-20.0	-36.0	-53.6	-71.4	-62.1	11.2
경기소비재	-0.5	-1.5	-1.5	-9.3	-4.3	-7.6	-19.6	-58.8	-52.6	-52.6	-57.9	13.1
필수소비재	-0.4	-2.7	-2.3	-8.1	-4.8	-6.9	-13.4	-63.6	-54.5	-63.6	-27.3	22.3
금융	-0.4	-0.7	1.7	-2.0	-1.4	-0.3	-2.6	3.0	-6.3	-56.3	-31.3	7.5
IT	0.0	1.2	1.3	-2.2	-1.7	-7.3	-15.3	20.0	-20.0	-60.0	-60.0	20.2
통신서비스	-1.2	-0.7	1.5	0.4	-0.9	1.2	-0.6	-25.0	-75.0	0.0	-50.0	12.1
유틸리티	-0.3	2.0	5.8	16.6	0.6	0.6	5.8	-25.0	12.5	25.0	0.0	12.2

자료: IBES(2012. 12. 20 기준), 키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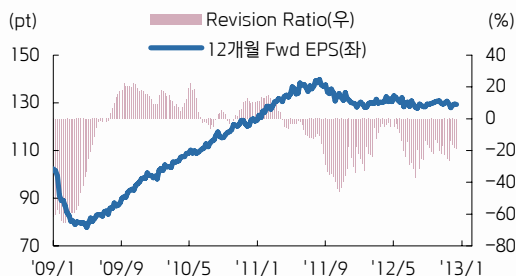
주: Revision Ratio, PER은 12개월 Forward EPS 기준

Revision Ratio = [(12개월 Forward EPS 상향조정 기업 수 - 하향조정 기업 수) / 총 기업 수]

중국 의료 업종은 Data가 없는 관계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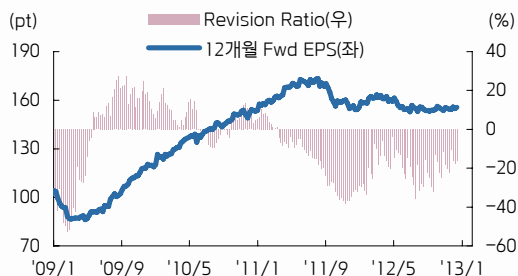
>>> MSCI 주요 지역별 12M Fwd EPS & Revision Ratio 추이

AC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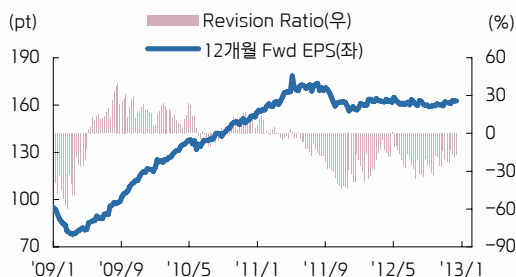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EMERGING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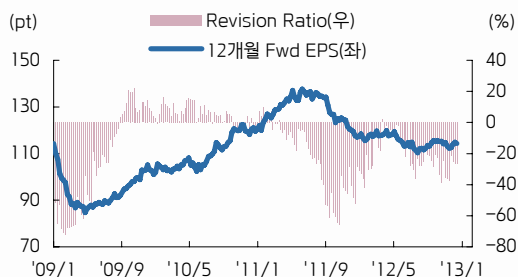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ASIA-PAC. EX 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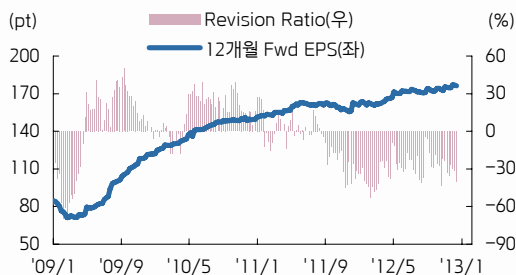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EUR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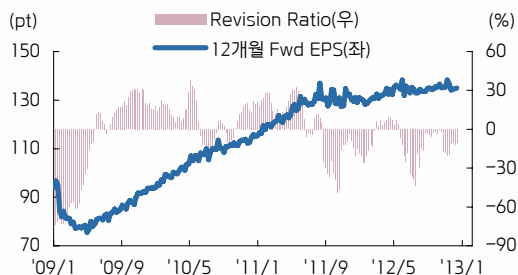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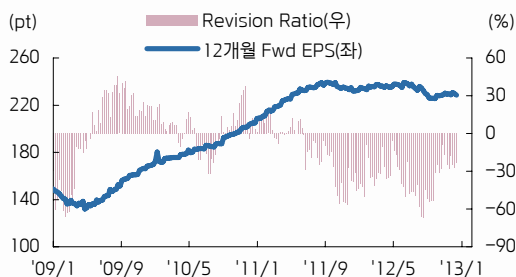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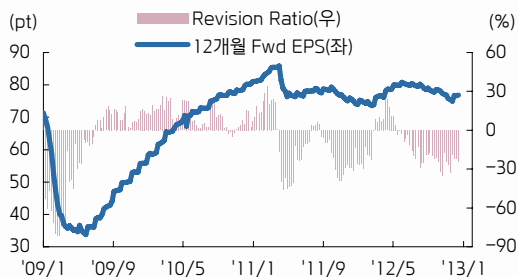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CHINA



자료: IBES, 키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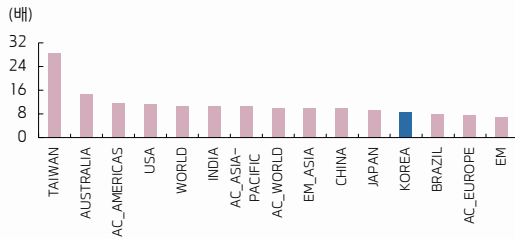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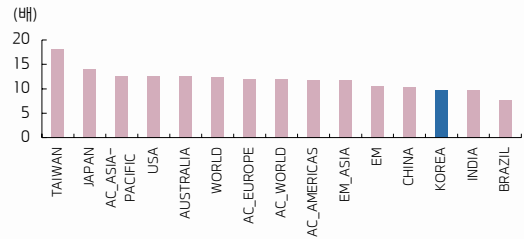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 MSCI 주요 지역 업종별 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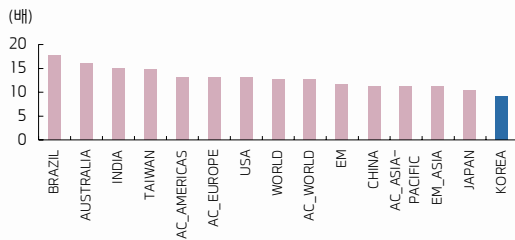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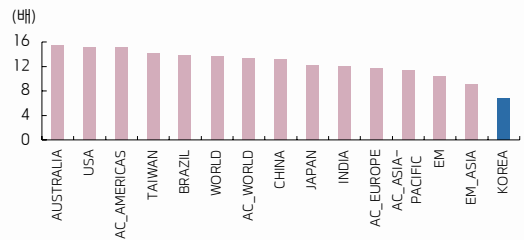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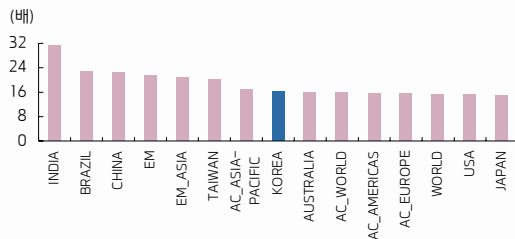
산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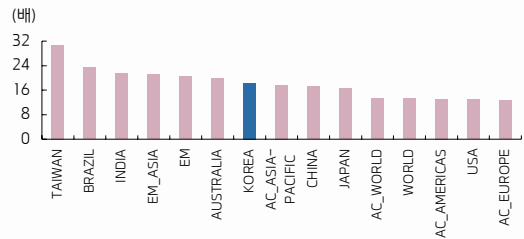
경기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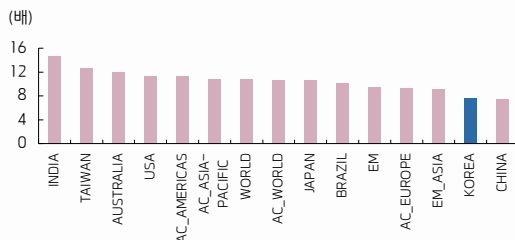
필수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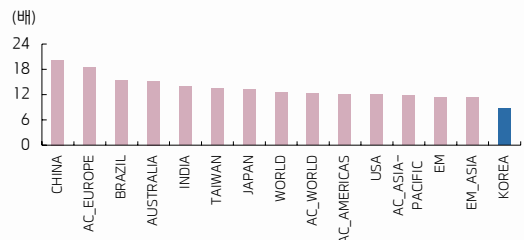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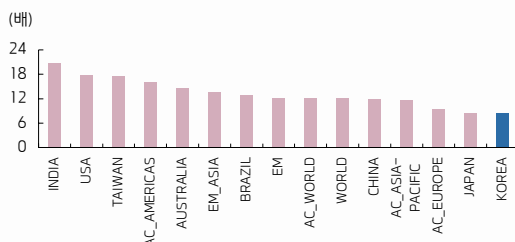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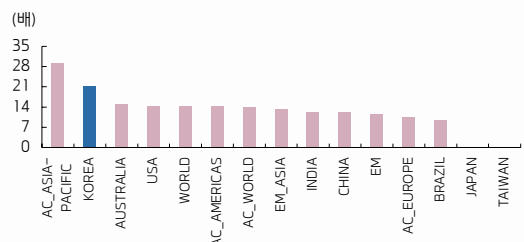
IT



통신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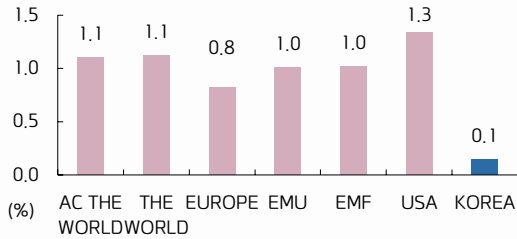
유틸리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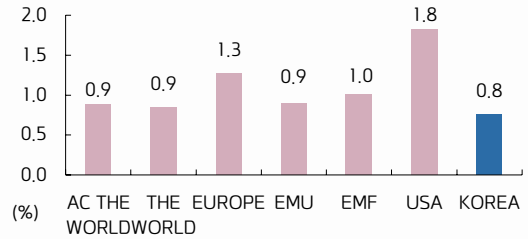
자료: IBES (2012. 12. 20), 키움증권
주 Taiwan 의료/유틸리티 업종 집계되지 않음

>>> MSCI 주요 지역 업종별 지수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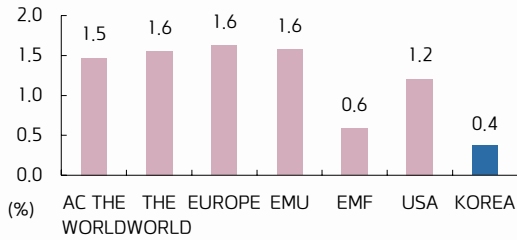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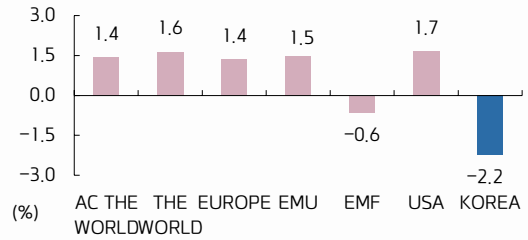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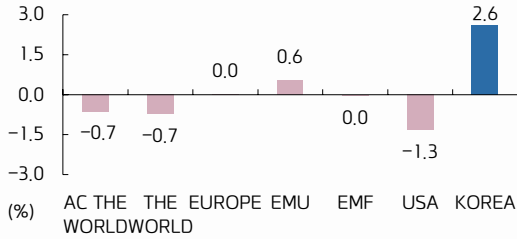
산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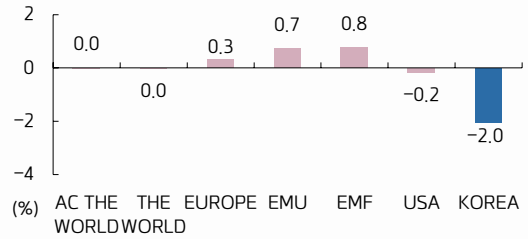
경기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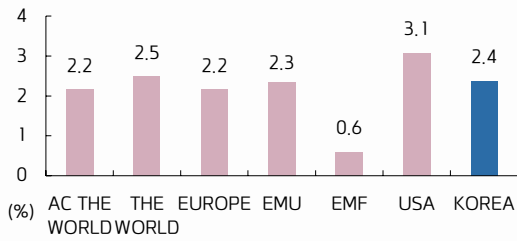
필수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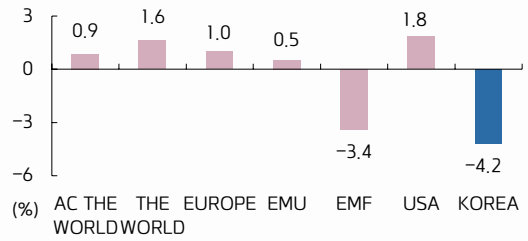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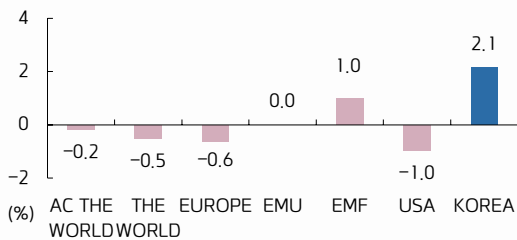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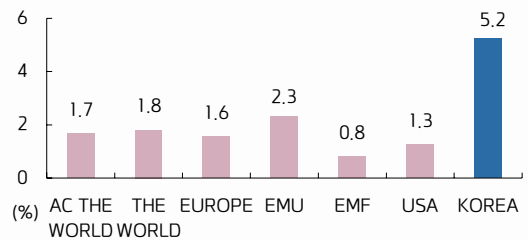
IT



통신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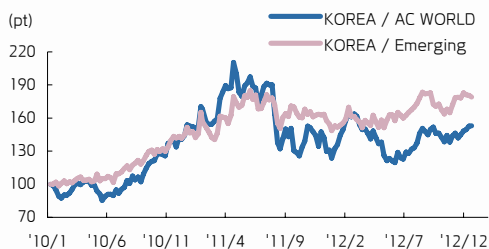


유틸리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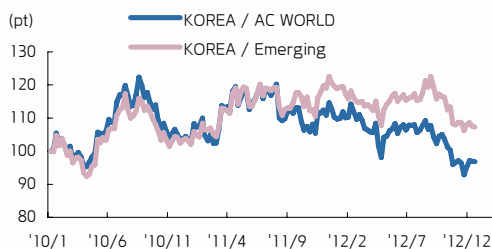


>>> MSCI KOREA 주요 시장대비 상대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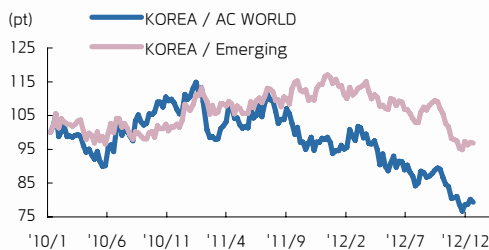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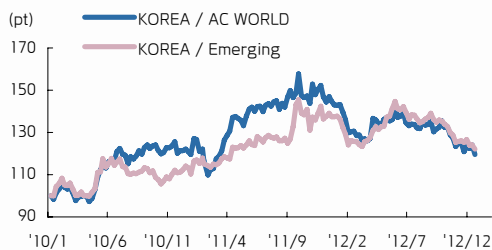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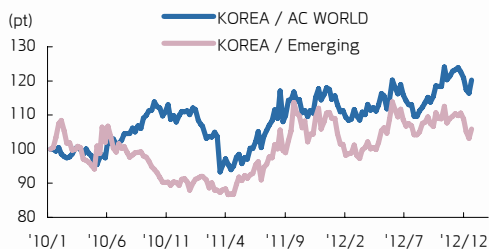
산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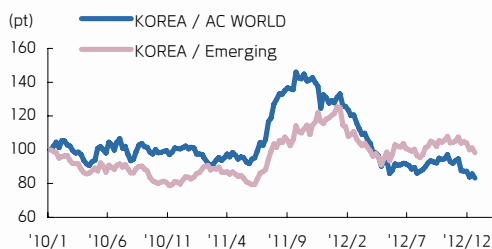
경기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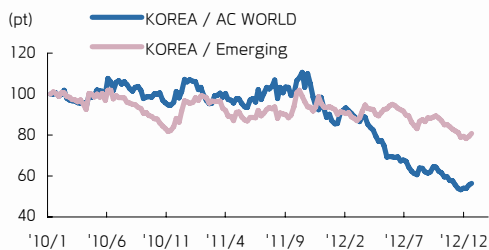
필수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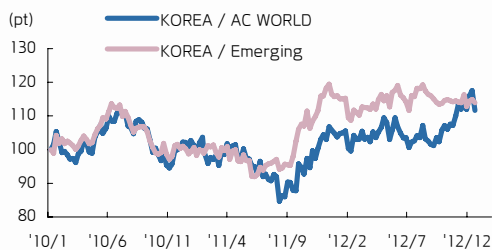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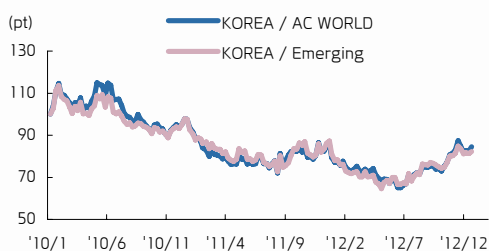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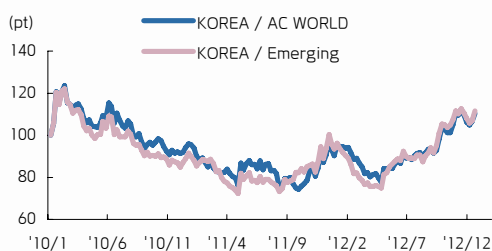
IT



통신서비스



유틸리티



>>> 해외 주요지수 · 종목 동향

주요국 지수	종가	D-1	D-5	D-20	주요 상품가격	종가	D-1	D-5	D-20
Dow	13,190.84	-0.91%	+0.43%	+1.39%	금(COMEX)	1,659.10	+0.86%	-2.16%	-5.27%
NASDAQ	3,021.01	-0.96%	+1.67%	+1.83%	천연가스(NYMEX)	3.45	-0.32%	+4.13%	-11.54%
S&P 500	1,430.15	-0.94%	+1.17%	+1.49%	알루미늄(LME, 3M)	2,073.00	+0.14%	-2.24%	+6.36%
Semiconductor	385.59	-1.00%	+1.20%	+4.45%	전기동(LME, 3M)	7,792.00	-0.76%	-3.39%	+1.29%
NYSE	8,443.16	-0.86%	+1.31%	+2.65%	아연(LME, 3M)	2,062.00	-0.22%	-1.10%	+6.21%
NASDAQ 100	2,664.67	-1.07%	+1.39%	+0.95%	WTI(현물)	88.31	-1.53%	+1.82%	+0.03%
S&P 100	648.96	-0.98%	+1.02%	+0.92%	옥수수	702	+0.79%	-2.33%	-5.84%
S&P mid 400	1,022.36	-0.76%	+2.08%	+3.28%	설탕(NYBOT/ICE)	19.25	0.00%	+1.26%	+0.57%
S&P small 600	475.73	-0.41%	+3.11%	+4.72%					
Russell 2000	847.92	-0.54%	+2.93%	+5.05%					
영국	5,939.99	-0.31%	+0.31%	+2.08%	한국 DR 및 환율				
독일	7,636.23	-0.47%	+0.52%	+4.48%	KB금융지주(ADR)	35.67	-1.16%	+2.44%	+10.50%
프랑스	3,661.40	-0.15%	+0.50%	+3.76%	신한지주(ADR)	36.08	+0.28%	+2.91%	+13.85%
일본	9,940.06	-0.99%	+2.08%	+6.12%	LG디스플레이(ADR)	13.89	-4.60%	-4.21%	-17.27%
대만	7,540.14	+0.27%	-1.36%	+1.79%	POSCO(ADR)	81.34	-0.96%	-0.04%	+12.15%
홍콩항셍	22,506.29	-0.68%	-0.44%	+2.70%	SK텔레콤(ADR)	16.48	+0.73%	+2.87%	+5.37%
홍콩 H	11,229.09	-1.09%	-0.69%	+5.87%	한국전력(ADR)	13.73	+0.59%	+7.77%	+10.02%
상하이종합	2,153.31	-0.69%	+0.12%	+6.21%	KTI(ADR)	17.92	+0.22%	+2.05%	-1.70%
상하이A	2,254.83	-0.70%	+0.12%	+6.21%	우리금융지주(ADR)	32.97	+1.04%	+5.64%	+19.46%
선전A	866.32	+0.25%	+1.66%	+3.54%	삼성전자(GDR)	677.00	-3.29%	-2.59%	+1.96%
태국	1,373.38	-0.29%	+1.10%	+7.60%	삼성전자 우 (GDR)	390.40	-3.13%	-5.24%	-0.41%
싱가폴	3,163.56	-0.38%	-0.15%	+5.83%	현대차 우 (GDR)	32.94	-0.90%	-2.20%	+2.33%
인도네시아	4,250.21	-0.11%	-1.36%	-2.27%	LG전자(GDR)	9.45	-1.31%	-1.00%	-6.80%
러시아	1,512.18	-1.09%	+0.75%	+5.58%	롯데쇼핑(GDR)	17.08	+0.47%	+1.07%	+5.24%
인도	19,242.00	-1.09%	-0.39%	+3.91%	STX팬오션(SGD)	4.35	-6.65%	-7.45%	+13.87%
멕시코	43,621.62	-0.04%	+1.33%	+3.78%	원/달러	1,074.30	-0.04%	-0.04%	-1.09%
브라질	61,007.03	-0.44%	+2.35%	+5.96%	엔/달러	84.24	-0.18%	+0.86%	+2.23%
한국	1,980.42	-0.95%	-1.12%	+4.26%	달러/유로	1.3188	-0.42%	+0.19%	+1.63%
					위안화/달러	6.2302	-0.01%	-0.25%	+0.03%

다우지수 구성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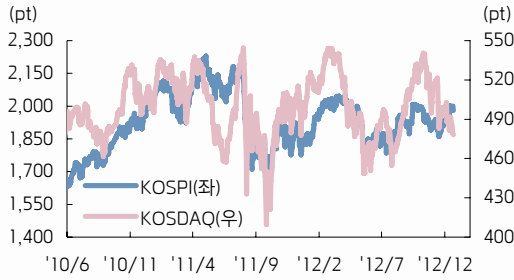
3M	93.10	-1.09%	+0.89%	+3.12%
Alcoa	8.57	-1.49%	-1.95%	+2.63%
Altria Group	32.66	-2.48%	-3.95%	-4.87%
American Express	57.65	+0.44%	+1.77%	+2.02%
AIG	35.53	-2.22%	+2.36%	+5.82%
AT&T	33.67	-1.52%	-1.00%	-2.01%
Boeing	76.17	-0.04%	+2.90%	+3.30%
Caterpillar	87.90	-1.79%	-1.24%	+4.44%
Citigroup	39.49	-1.69%	+5.03%	+9.60%
Coca Cola	36.89	-0.43%	-2.04%	-2.74%
Du Pont	44.93	-0.88%	+1.91%	+4.20%
Exxon Mobil	87.23	-1.87%	-0.97%	-2.09%
General Electric	20.88	-0.81%	-3.42%	-0.76%
General Motors	27.32	-0.07%	+11.01%	+8.37%
Hewlett Packard	14.34	-0.62%	-2.78%	+15.27%
Home Depot	61.32	-1.05%	-1.19%	-5.40%
Honeywell	34.74	-2.22%	+2.36%	+5.82%
IBM	193.42	-0.69%	+0.87%	-0.04%
Intel	20.76	-1.28%	+1.17%	+5.33%
J&J	70.27	-0.68%	-0.59%	+1.02%
JPMorgan	44.00	-1.19%	+2.78%	+7.08%
McDonald's	90.18	+0.16%	+1.46%	+3.60%
Merck	41.52	-1.52%	-4.64%	-6.23%
Microsoft	27.49	-0.69%	+2.54%	-0.76%
Pfizer	25.08	-1.38%	-0.32%	+2.24%
P&G	68.72	-1.58%	-1.73%	-1.25%
United Tech	82.54	-0.76%	+3.20%	+5.00%
Verizon	43.57	-0.55%	-1.45%	-0.43%
Wal Mart	68.65	-0.51%	-0.15%	-2.21%
Walt Disney	50.00	-1.86%	+2.73%	+1.50%

필라델피아반도체 구성종목 및 주요 기술주

AMD	2.59	+8.37%	+8.37%	+32.82%
Altera	34.50	-0.72%	+4.99%	+8.29%
Applied Materials	11.50	+1.05%	+3.88%	+10.58%
Broadcom	33.18	-0.87%	+3.49%	+5.07%
Cree	33.86	-2.25%	-0.18%	+7.94%
Intel	20.76	-1.28%	+1.17%	+5.33%
KLA-Tencor	48.37	-0.29%	+2.52%	+7.08%
LAM research	36.24	-0.96%	-0.36%	+2.55%
Linear Tech	34.22	-0.49%	+1.91%	+5.45%
Marvell Tech	8.34	-1.42%	+1.46%	+3.35%
MEMC	3.24	-4.14%	+0.62%	+26.07%
Micron Tech	6.32	-6.92%	-7.74%	+11.27%
National Semi	24.74	+0.20%	-0.12%	+0.57%
Novellus System	40.39	-0.47%	-6.16%	-10.44%
Sandisk	44.32	+0.20%	+3.87%	+10.44%
Stmicroelectron	7.12	+0.28%	+2.89%	+17.88%
Taiwan Semi	16.95	-0.88%	0.00%	+0.65%
Teradyne	16.75	-0.71%	+1.58%	+5.15%
Texas Instrument	29.11	-0.78%	-1.32%	-3.64%
Xilinx	36.10	-0.55%	+2.06%	+5.59%
Apple	519.33	-0.46%	+1.87%	-9.13%
Ebay	51.35	-1.52%	+1.97%	+4.77%
Cisco	19.96	-1.38%	+0.50%	+5.94%
Dell	10.43	-0.67%	0.00%	+9.21%
Research In Motion	10.91	-22.79%	-22.29%	-6.43%
Google	715.63	-0.93%	+1.95%	+7.14%
Nokia	3.99	-4.55%	+4.45%	+12.08%
Oracle	33.76	-0.53%	+5.63%	+9.18%
Qualcomm	61.61	-1.99%	+2.97%	-2.41%
Yahoo	19.35	-1.74%	-1.48%	+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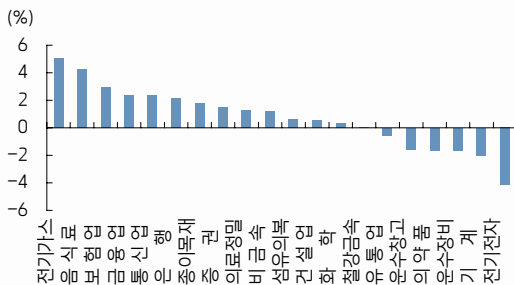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KOSPI vs KOSDA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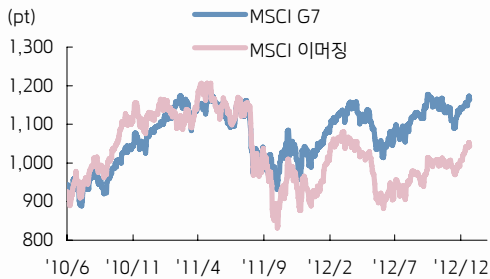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카움증권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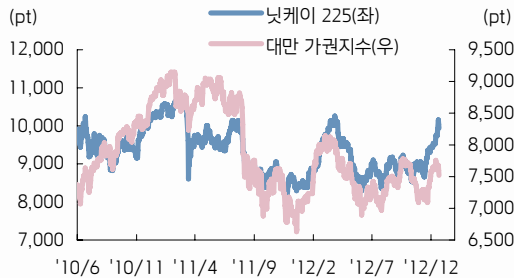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카움증권

MSCI G7 vs MSCI 이머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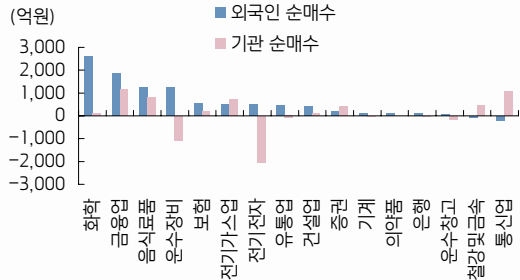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카움증권

닛케이 225 vs 대만 가권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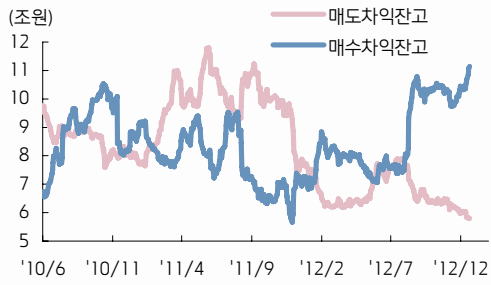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카움증권

업종별 주간 기관 vs 외국인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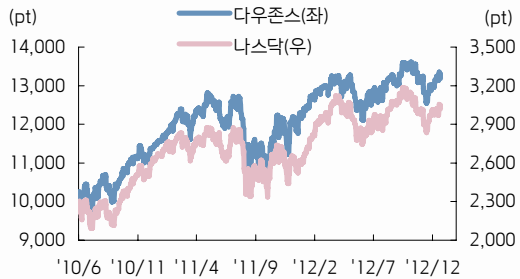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카움증권

매수차익잔고 vs 매도차익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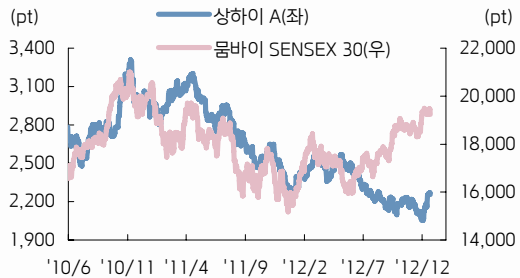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카움증권

다우존스 vs 나스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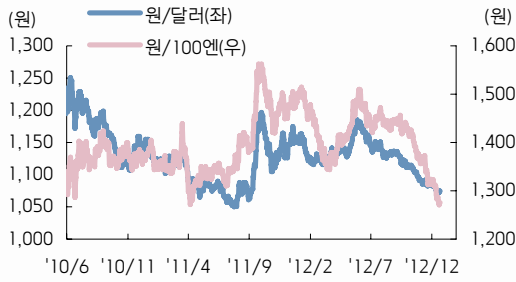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카움증권

상하이 A vs Mumbai SENSEX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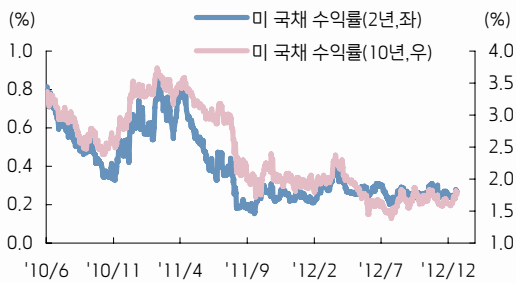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카움증권

원/달러 vs 원/100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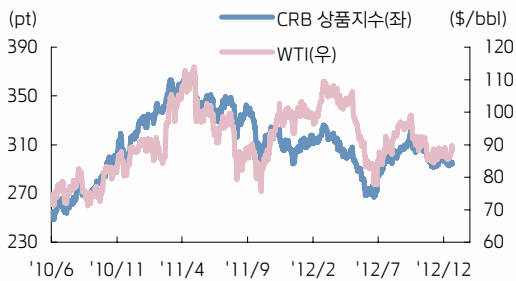
자료: CEIC, 키움증권

미 국채 수익률 2년 vs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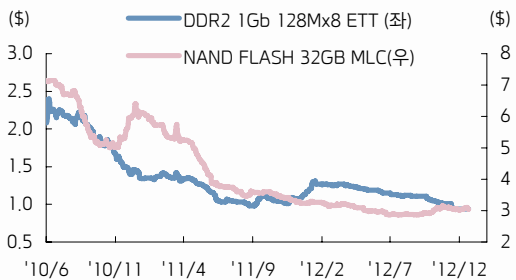
자료: CEIC, 키움증권

CRB 상품지수 vs WTI 현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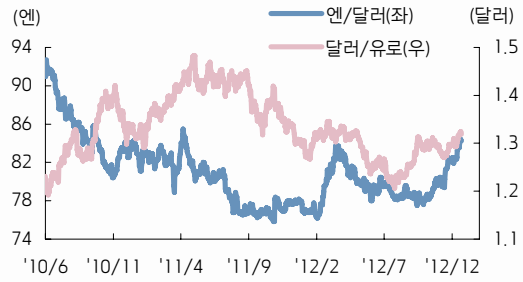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DRAM2 1Gb vs NAND FLASH 32GB ML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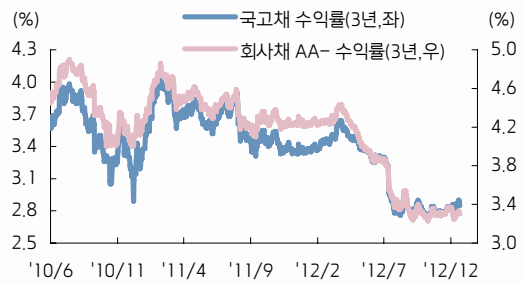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엔/달러 vs 달러/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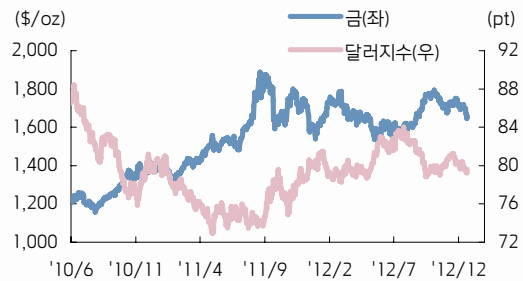
자료: CEIC, 키움증권

국고채 수익률 3년 및 회사채 AA- 수익률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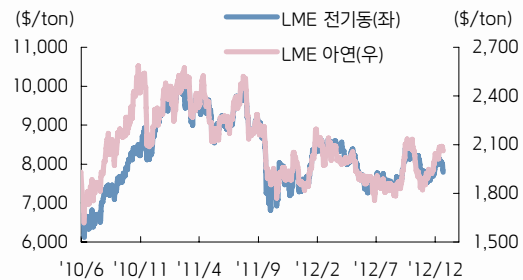
자료: CEIC, 키움증권

국제 금가격 vs 달러 인덱스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LME 전기동 3M vs LME 아연 3M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